

전 남

나주시 기준 없는 '편법인사' 경고

행안부 감사 결과 시장 경고·과장 2명 징계 조치 통보

나주시 인사행정 신뢰도가 추락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나주시 인사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인사행정을 한 나주시장에 경고, 전 행정국장 훈계, 과장 2명을 징계조치할 것을 시 감사실에 통보했다.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이 지난해 제기한 나주시 인사행정의 부당성이 이번 행안부의 감사결과 잘못됐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인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문제점과 청원경찰 채용, 직렬을 무시한 인사조치, 사무관 2명에 대한 대기발령한 것은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며 시 인사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와 함께 "합법적이고 공정한 인사였다"는 해명을 직원들의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발송, 대립각을 세워 왔다.

나주시 노조 역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감사원과 행안부에 감사청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감사원과 행안부에 감사청구를 해 양 기관은 특별감사팀과 기동감사팀을 통해 감사를 시작했다.

최근 행안부는 감사 결과 '인사위원 통보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관 2명 대기발령, 근무평점 결정 위원회 형식적 개최, 직렬무시 명장 발령은 부정적이라며 나주시의 잘못

을 지적했다.

그동안 나주시 인사는 '보복성 인사, 편가르기 인사다. 사조직화한 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를 제기한 정찬걸 의원은 "편히 아는 사실을 숨기고 밀어붙인다고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그동안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고 시장은 진실을 호도한 당사자들을 징계와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행정복지국장은 "지금로서는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보성차밭 빛축제 '대박'

39만여명 다녀가 지역경제 180억 효과

지난해 12월 9일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2개월여에 걸쳐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았던 '보성차밭 빛축제'가 지난 2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보성군은 "'보성차밭 빛축제'는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연인원 39만 여명이 다녀갔으며, 지역 경제에 약 180억여 원의 직·간접 생산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과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2차례 점등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작은 음악회 등 이벤트를 마련해 특별한 추억을 관광객에게 선사했다.

'말레니움 트리'로 지난 2000년 기네스북에도 등록된 '보성차밭 대형트리'(높이 120m·폭 130m)는 올해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문구를 선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또한 임진년 '응의 해'를 맞아 여의주를 물고 있는 응의 모습을 빛

으로 형상화해 소원을 들어주는 '테마 거리'와 '은하수 터널'을 조성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은하수터널' 소망카드 달기 행사에는 중국·일본·미국 등의 외국인을 포함해 1만여명이 참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겨울철이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불거리와 콘텐츠로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보성군 '활성산성 보부상길' 복원

올 사업비 5억원 투입 편백 숲 50ha도 조성



보부상들이 오가던 옛길이 '녹색길'로 정비된다.

보성군은 지난해 조성한 '서편제 보성소리 득음길'(총길이 34km)에 이어 올해 추가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활성산성 편백 숲 보부상길'(사진)을 복원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활성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특량만의 왜구 침입을 막고, 침입시 주민들이 대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흙으로 축성한 토성(총길이 1.6km)이다.

활성산성 주변에는 40년 이상 자란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50ha)을 비롯해 보성차밭과 한국차 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군은 ▲'보부상길'(편백 숲길) 6km를 개설하고 ▲휴게 및 전망 데크시설 2개소 ▲안내지원센터 1동 ▲간이화장실 1동 ▲자전거 임시보관대 1식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백나무 1000그루를 식재하고 편백 숲 50ha를 정비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부상 길'이 완성되면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녹색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 기자 sun@

지역 실업계고 출신 강진군 공무원 채용

강진군이 지역내 고졸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지역인재육성 및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제1회 강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역내 실업계 고등학교인 전남 생명과학고 졸업생 중 농업직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군은 학교장으로부터 2일까지 시설원에, 동물지원, 산업기계, 조경, 식품산업, 관광유통 6개 분야별로 각 3명씩 총 18명의 성적 우수자를 추천 받은 후 2월 25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동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잔나비불로초 버섯 항염증 효능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2년 연구끝 확인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 자생하는 '잔나비불로초 버섯'(사진)의 항염증 효과가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박사 연구팀은 전남한방산업진흥원과 함께 최근 2년간 도내 난대림에서 채취한 잔나비불로초버섯의 생리활성 효능에 관한 항염증 연구를 통해 이 같은 효능을 밝혀냈다.

연구소는 버섯추출물에서 세균

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이 증가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물질을 확인했다.

실제로 염증유발물질을 주사한 실험쥐에 버섯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85.7%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쥐는 대부분 쇼크사했다.

특히 버섯추출물 1mg/ml 농도에서는 정상적인 면역세포에 아무런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점도 증명

돼 안정성도 확인됐다.

연구소는 2월 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임학회에 이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의학전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병선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장은 "뽕밥과 단묵을 이용한 인공재배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약리 효능을 밝혀 염증을 치료해 개발에 기여하겠다"며 산·학·연 공동연구 계획 소개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완공

차량 341대 주차 규모 식당·세차장 등도 갖춰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사진>가 착공 7개월만에 완공돼 2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4만 4446㎡ 규모로 순천시가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SK에너지(주)와 함께 사업비 215억원(국비 및 시비 139억, SK에너지 76억) 투입했다.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순천 공영차고지는 총 341대(화물차 226·승용차 115)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췄다.

또한 운전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각종 휴게시설을 비롯해 식당, 주유소, 정비동, 세차장, 편의점, 알선사무

실 등이 마련됐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내 시설은 20년간 SK에너지(주)에서 운영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공

영차고지 준공에 따라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

이태리가구 쇼핑몰

www.100424.com

(천사24닷컴)

신상품 입점 : 100~200만원대 식탁 거실TV장

☎1899-0240

홍스케이스

홍은 수입원/직수입 → 도매가 판매
이태리가구 빌딩 400평 매장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동구청-전남여고사이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전(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요금(사용전량 제외)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